



조선

2025 12

(836)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례

특별소식

- 2 II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 준공식 성대히 진행
- 8 II 영광의 당대회에 드리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자랑찬 로력적선물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 14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8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 공장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22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 공장들의 실태를 현지료해하시였다
- 28 II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 38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안전보위기관창립 80돐에 즈음하여 국가보위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 42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는 사회 안전성을 방문하시고 사회안전군 장병들을 축하격려 하시였다
- 46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사법 검찰기관 일군들을 만나시고 축하하시였다
- 50 I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였다

특집

- 54 II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오늘의 조선

- 64 II 지방중흥의 새시대가 펼친 2025년의 새집들이경사
- 68 II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의 정책
- 72 II 종합적인 과일가공기지
- 74 II 네번째로 들어올린 월드컵

표지: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을 기념하여 공군 시위비행 진행

편집: 변일진, 김규성, 승룡, 조효성, 리금주



2



28



64



68



74

특별소식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 준공식 성대히 진행





우리 당의 응대한 지방발전강령을 전망적으로 확대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팔목할 성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 준공식이 11월 19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파 정부의지도간부들과 함께 강동군병원에 도착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동군병원준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두번째 준공계절을 알리는 시각이자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마주하는 감개함을 피력하시면서 착공 당해에 준공을 선포하는것이 우리의 리상대로 가는 표준속도이며 이는 온 나라의 실제적인 중흥이 가속되고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혁명과 전진의 속도, 조선의 속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병원의 기존관념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이 병원은 건설과정도 교본적이였지만 운영과정도 지방보건발전의 우수한 본보기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훌륭히 꾸려진 병원에서 일하게 될 의료일군들이 누구보다 격양되어있을 마음들에 뜨거운 정성을 얹고 언제나 육친의 관심과 자애로 환자들을 대하여 높은 의술로써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인 결행으로써 인민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우리식 보건현대화에로 더욱 과감히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임을 천명하시면서 보건의 현대화이자 조국의 백년대계이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양양한 미래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의 개척자들답게 끓어넘치는 열정과 용솟는 기백으로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이 우리 생활속에 깃들 그날을 위하여, 나라의 곳곳마다 평안과 웃음, 행복과 우애가 넘쳐날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며 강동군인민들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기를 기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군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동군병원은 우리 당이 성취한 지방 중흥의 새로운 영역이며 전국적판도에서 보건하부구조를 선진적인 토대우에서 재건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값진 성과이고 명실공히 지방병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 변혁적실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담보하며 더 밝고 윤락한 장래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이



열렬히 반기는 새 문명의 창조물들을 인민들자신의 눈앞에, 피부에, 생활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정답게 와닿게 하기 위한 투쟁만큼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 선진문명으로 개화하는 발전환경을 전면적으로 착실히 구축하려는 우리의 투쟁에서는 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진행된 시범적인 부류별병원건설에서 이룩된

경험들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명년도부터 지방보건건설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강동군병원의 준공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속속 도래할 새 생활, 새 복리를 확신케 하는 의의깊은 경사로, 우리 당의 보건혁명방침을 가일층 확대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도약과 진보의 계기로 된다.



영광의 당대회에 드리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자랑찬 토력적선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이 11월 20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약되었다.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에 반드시 승리의 해로 기록되어야



할 2025년의 빛나는 결속을 위하여 온 나라가 격동하고 있는 시기에 희양군민발전소가 준공하게 된것은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면서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조국을 수호한 역사의 자취가 력력한 강원땅의 곳곳에 일며선 발전소들은 피로써 지켜낸 이 귀중한 터전을 더 굳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려는 군민의 마음이 함께 쌓아 올린 사회주의 신념의 성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강원도발전소들에 새기게 될 제명이라고 하시면서 과감하고 면춤없는 투쟁으로써 자생자활의 튼튼한 동력기지들을 마련하여 후대들도 덕을 보게 될 귀중한 재부를 우리당 제9차대회에 선물하게 된 강원도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전을 이기며 전면의 혁신을 창조한 강원도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한다면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강인한 기질과 본때를 위대한 강원도정신이라고 불려주시며 힘있는 자연의 정복자들, 우리 시대 기적의 주인공들을 다시금 격려해주시고 나날이 변하고 번창할 강원도의 새 모습과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뜨겁게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에서 혁혁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일일이 손잡아주시며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발전소의 연혁소개실과 조종실, 발전기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실태를 묘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에서 희양군민발전소를 포함하여 6개의 수력발전소건설을 당앞에 결의한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내에 모두 완공한 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역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당을 따라 자력의 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불굴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이야말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을 자기들의 견실한 애국충의심과 완강한 노력으로 실증해가는 우리 시대 개척 정신의 소유자, 전형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끗끗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마는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에 두렵 없이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억척같이 뼘메고 당대의 궁지 높은 현실로 전환시켜나갈 때 그것이 곧 국가의 발전과정이 되고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행복한 래일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줄기찬 풍성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전국진흥의 역사적사명수행에 더욱 분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용건하게 솟아오른 발전소언제를

부감하시면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폐지를 아로새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당을 따라 전면적국가번영의 시대, 지방변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세대의 애국공훈을 길이 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에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6개 수력발전소건설정형과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능력 조성계획사업을료해하시면서 수력발전소건설과 도의 자립적경제도대를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물질문화생활향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전력문제해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기적의 힘을 더욱 배가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혁사적투쟁의 선봉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26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설계 및 관계부문 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구형 유리수경온실과 유리토양 온실을 비롯한 기본건축대상들과 농장지구의 간선도로, 제방공사현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척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영광의 당대회를 향한 영예로운 창조투쟁, 철야전투에 떨쳐나선 군부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의 로력적헌신에 의해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은 총건축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있으며 농장지구의 원림조성과 방풍림 조성을 위한 지대정리가 끝난데 이어 자연공원들과 저류지에 대한 지대정리작업이 각각 97%, 87%, 수백 정보에 달하는 면적의 잔디심기작업이 95%, 농장지구 간선 도로와 온실구획내 도로포장작업이 72%단계에서 추진되고 온실호동들과 남새과학연구중심, 려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세대 살림집들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들이 진행중에 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결정에 따라 이 지역개발의 모든 대상공사가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실리성있게 되였다고, 특히 도로건설과 제방영구화구역의 경관조성을 비롯하여 방대한 면적의 환경정리사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지역고유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하였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하시면서 불모의 땅으로 불리우던 이곳 섬지구가 명실 공히 지방발전과 지역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견인해 나갈수 있는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되었다고 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는 지역의 거창한 변천을 목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면적 진흥의 용대한 구상과 과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창조의 재부가 늘어나는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애국의

거목으로 자라나고있는것이라고, 이 조선을 뼘메고나갈 새세대들이 조국을 먼저 알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보람을 찾을줄 아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성장한것이야 말로 이 세상 억만보화에도 비할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상공사를 완결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농장운영준비 및 경영 관리에서 제기되는 방도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4일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공장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국방상 노광철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설계 및 관계부문 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학용품공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사계획추진정형에 대하여 묵론하시고 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재 당에서 중시하고 있는 학용품 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교육기자재공장건설은 우리나라 교육분야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교육부문에서 몇년간 말공부만 해오던 공장건설을 불과 몇개월 남짓한 사이에 완공하게 되였다고, 우리 군대는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또 한번의 보람찬 창조투쟁, 철야전투로써 귀중한 재부를 안아올렸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몇년간 당중앙전원회의때마다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중대사안으로 취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로 5년이 되는 이해 중반기까지 공사가 진척되지 못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경제실무적 조건관계를 둘하기에 앞서 당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대하는 내각과 교육부문 지도간부들의 관점과 태도상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전원



회의들마다에서 이 공장들을 설립하는것에 관한 같은 내용의 결정서가 무려 8차례나 의결되였지만 집행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문에서는 그 집행을 위한 똑똑한 방도도 내놓지 않았다고, 오는 12월전원회의에서는 매번 국사중의 국사로

중대한 의미가 부여된 중요정책사업들이 몇년간이나 차요시되고 방치된 원인을 엄격히 총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교구비품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교구비품공장건설 역시 기본골조공사를 끝내고 마감공사를



다그치고있다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금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시공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축공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마다에 당정책을 대하는 인민군대의 견실한 사상정신세계와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이 깃들어있는것이 력력히 알린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교육기자재공장은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핵심공장들인것 만큼 건축과 설비공정구성에서나 생산 및 생활환경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건축공사를 년말까지 완성하고 래년도 상반년중에 공장들을 조업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 구비하게 될

교구비품건본들을 보아주시면서 교종별, 나이별, 체형별, 품종별에 따르는 적합한 규격과 수요, 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원료, 자재보장체계를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앞으로 예견하고있는 해당 조치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아들여 조국의 미래와 직결된 창조물을 자기들의 두손으로 이룩해간다는 궁지와 책임감을 보다 깊이 간직하고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대상건설을 우리 시대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관할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기세드높은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숙원을 하루빨리 훌륭한 결과물로 이룩해놓고 당중앙에 영광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삼가 드릴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의 실태를 현지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3일 준공을 앞둔 여러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찾으시여 실태를 현지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조용원동지, 박정천 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평안남도 신양군의 지방공업 공장을 현지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설계기관 일군들, 신양군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 지방공업공장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의 생산시설, 문화후생시설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시공 정형과 운영준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부대들의 시공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전보다 현저히 발전한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건설공정전반에서 편파성이 확고히 줄어들고 균형성과 전문화수준이 제고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의 질적평가는 마감시공에 달려 있다고 하시면서 각급 건설부대들에서 마감시공의 전문성과 정교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공업공장건설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고 공장들의 운영과 생산 활성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해주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남도 북창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료공장건설에서 건축설계와 공정 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초기 도면과 달리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체계가 바로서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의 요구대로 건설에서 높은 질적수준을 보장하며 공장들을 우리식





문명과 발전의 직접적 실체로 완벽하게 건설하자면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의 3자 합의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건설의 과학화, 일체화를 실현하며 산업시설건설에서 건식 공법 비중을 계속 확대 장려해나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각종 소비품을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는 것은 당의 지방 공업정책 수행에서 중핵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

면서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는 특산물의 품종수를 늘이고 일용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변혁의 역사적 과제를 인민군대에 위임한 것은 우리 군대에 대한 당과 혁명, 시대와 인민의 가장 숭고한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건설부대 장병들이 조선로동당의 숙원,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의 전위에서 혁명군대특유의 투쟁정신과



기질, 창조본래를 계속 높이 발휘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안남도 은산군에 새로 건설한 은산종이공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리 경찰동지와 관계부문, 공장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 도별로 도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종이생산공장을 설립할 데 대한 당결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평안남도 은산군에 먼저 건설한 종이생산공장은 우리 식의 제지공업 발전과 전망적인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용도초지기, 위생종이초지기, 종이용기성형기를 비롯하여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의 개척정신과 창조의 열정이 뜨겁게 어려있는 생산설비들을 돌아보시면서 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의





하나를 끓는데서 평안남도안의 여러 기업소와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가 기치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특히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가 우리 식의 제지법, 제지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전망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평가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한해의 자랑찬 창조투쟁, 로력투쟁의 결과들을 총화하고 인민들에게 평가받는 준공, 조업의 계절이 왔다고 하시면서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이 12월중에 진행되는 준공식과 조업식전까지 사소한 결점도 없이 운영준비를 책임적으로 갖출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지방 발전정책추진과 관련한 여러 과업을 포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행사가 11월 28일 제2공군사단 59길영조영웅련대 갈마비행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영웅적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길영조영웅의 반신상을 찾으

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하늘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충성의 비행운을 새긴 영웅비행사의 깊높은 삶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혈사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속에 김정은동지께서 비행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공군장병들은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비범한 군사적예지로 공화국무력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주시고 오늘은 인민공군의 전투적행로에 길이 빛날 무상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하신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광혁동지, 정치위원 공군중장 염주호동지를 만나시고 전체 공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약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설적공훈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 공군과 관하부대 군기들에 전투적경례를 표하시고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공군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전망대에 오르시여 항공절기념 공군시위비행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쌍기편대로 시위비행을 진행하는



특별소식

자랑스러운 처녀비행사들인 안옥경, 손주향동무들의 비행 모습을 보시며 따뜻이 격려해주시였다.

뜻깊은 창설기념일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시위비행을 하게 된 공군비행사들은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에 아름다운 삼색비행운을 새기고 축포탄을 터쳐올리며 능란한 조종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비행사들이 신축자재 한 조종으로 각이한 전투기동비행술을 펼칠 때마다 뜨거운 경례를 보내시며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위비행을 마친 비행사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높은 비행술을 과시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처녀비행사들이 보여준 비행술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동무들이라고, 공군의 명예, 이 나라 여성들의 존엄을 안고 임무수행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 삶과 죽음만으로 결판을 내야 하는 하늘에서의 대결전은 무장장비의 대결이기 전에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고, 싸움의 승패는 첨단 전투기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그 어느 나라 군대와도 대비 할수 없는 압도





적인 정치사상적위력을 지닌 정예의 공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크나큰 힘이고 궁지이라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창설 80돐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공군장병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새 조선의 항공대로 태여난 때로부터 지난 80년간 성스러운 수호의 장로를 걸어온 인민공군의 영예로운 항적들은 하나하나가 다 세인을 놀래우는 전설이였다고 하시면서 만리창공에 수놓



아진 불패의 공군신화들은 우리 군대의 높은 사상정신력과 불굴의 전투정신, 용맹성의 상징으로 조국력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준엄한 시각이나 평화로운 나날이나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며 충성의 항로에 위훈만을 새겨가는 미더운 공군장병들이 있기에 조국의 푸른 하늘은 언제나 안녕할것이며 공군의 강대함은 불멸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보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공절기념행사에 특별초청된 제대 장령들을 만나주시고 국가령공방위력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생의 모든것을 다 바친 공군장들의 헌신적인 삶과 위훈을 칭찬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공군대장 김광혁동지가 기념 보고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우리 공군의 궁지높은 력사를 추억하며 그 위대한 80성상에

경의를 드리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의 공군창설기념일을 의의있게 맞이하는 영웅한 비행사들과 지금 이 시각도 조국의령공방위와 인민의 복리를 위해 분투하고있는 전체 공군장병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군의 군기에 새겨진 수자가 말해 주듯이 우리 당창건과 일치한 그 창설년대도 자랑스럽고 인민군대의 맏아들군종이라는 관록도 궁지스럽지만 장장 80년 하늘길에 새겨온 영예로운 전투행로에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수사로도 공군의 거세찬 태동을 안아온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로 이어온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역사와 고결하고 영웅적인 모든것을 그대로 표현할수는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성스러운 수호전의 승리를 체현한 두세기의 증전자라고 하면 마땅히 공군을 제일먼저 꼽아야 할것이라고, 조선인민군의 삼군종가운데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실전을 제일 많이 경험하였고 우리 군대의 첫 비행사 영웅이 나온 때로부터 오늘까지 2명의 2중영웅을 포함하여 130여명의 영웅들과 수십개의 영웅부대, 구분대들을 배출한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 공군이 항시 주권과 국익



사수의 전초에 서있었으며 그의 무훈이 조선인민군의 발전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와 인민의 운명과 장래를 좌우
하는 중대한 시각들에 언제나 자신의 곁에 함께 있었고
한치의 오차나 사소한 실수도 없는 절대의 집행력으로 믿음
직한 안전을 담보해준 공군에 대한 정깊은 마음을 전하시
면서 우리 군대의 모든 군종, 병종이 부여받은 주권사수의
사명은 다같이 무겁고 명령을 접수하는 대답도 한목소리
였지만 집행에서의 무조건성과 완벽성에서는 공군을 따를
군집단이 없었다고, 조선인민군의 맏아들, 좌상군종이라는
명함은 우리 정규무력건설사에서 제일먼저 창설되였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공군장병들이 다른 군종, 병종에 비할바
없는 막중한 임무를 떠메고 언제한번 어기거나 드린적이
없는 특출한 공적으로써 쟁취한 자랑스럽고 멋진 한 영예
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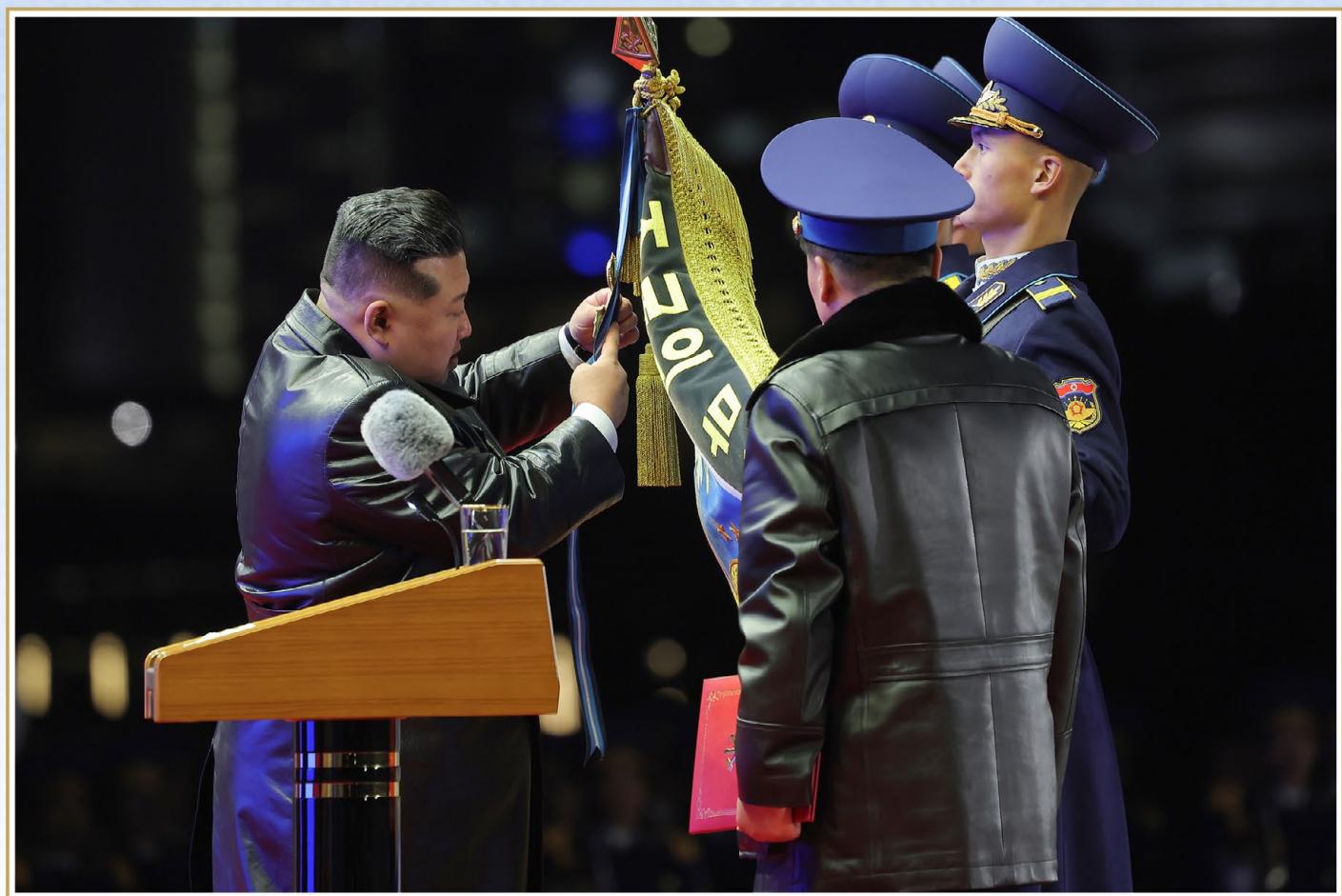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명령받은 우리 비행사들에게는
사는가, 죽는가 하는 문제자체가 설정된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창조한 공중전법과 공중신화들은 하나같이 불사신의 용맹과
영웅성의 산아이라고 하시면서 중파부적인 군사적위협속

에서든,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앞에서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에 무조건적인 명령집행을 놓고 전무한 기적과 위훈을
줄기차게 탄생시키는것이 공군이 유전하여온 불멸의 특질
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군의 작전령역에는 신성한
우리 령공과 령토, 령해는 물론 거창한 변혁의 전구들이
첩첩히 전개되어있으며 혁명군대의 위훈을 부르는 보람찬
투쟁에서 전군을 이끄는 선두에는 언제나와 같이 공군의
명함이 빛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것이라고 하시
면서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공군은 압도적인
정신력과 공세적인 기세로써 공화국의 령공주권을 침해
하려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들과 군사적도발가능성
들을 단호히 격퇴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무들이 있기에 우리 하늘의 영원한
푸름과 우리 조국의 안녕을 확신한다고, 조국앞에 언제나
충실한 복무정신에 감사드린다고 하시면서 영웅적공군의
무훈과 비행사들의 안녕을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창설 80돐을 맞이하는 공군에 영예의 김정일훈장을 수여할데 대한 정령을 채택한데 대하여 발표하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축하문을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설 80돐을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공군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축하문을 전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을 수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공군사령관에게 훈장증서를 수여하시고 조선인민군 공군 군기에 김정일훈장을 달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공군장병들을 따뜻이 축하해주시면서 영용한 공군무력의 전체 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 관병들이 영광의 군기에 새겨진 80년의 자랑스러운 연혁을 련속적인 승전신화로 빛내이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공연이 명사십리

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공군장병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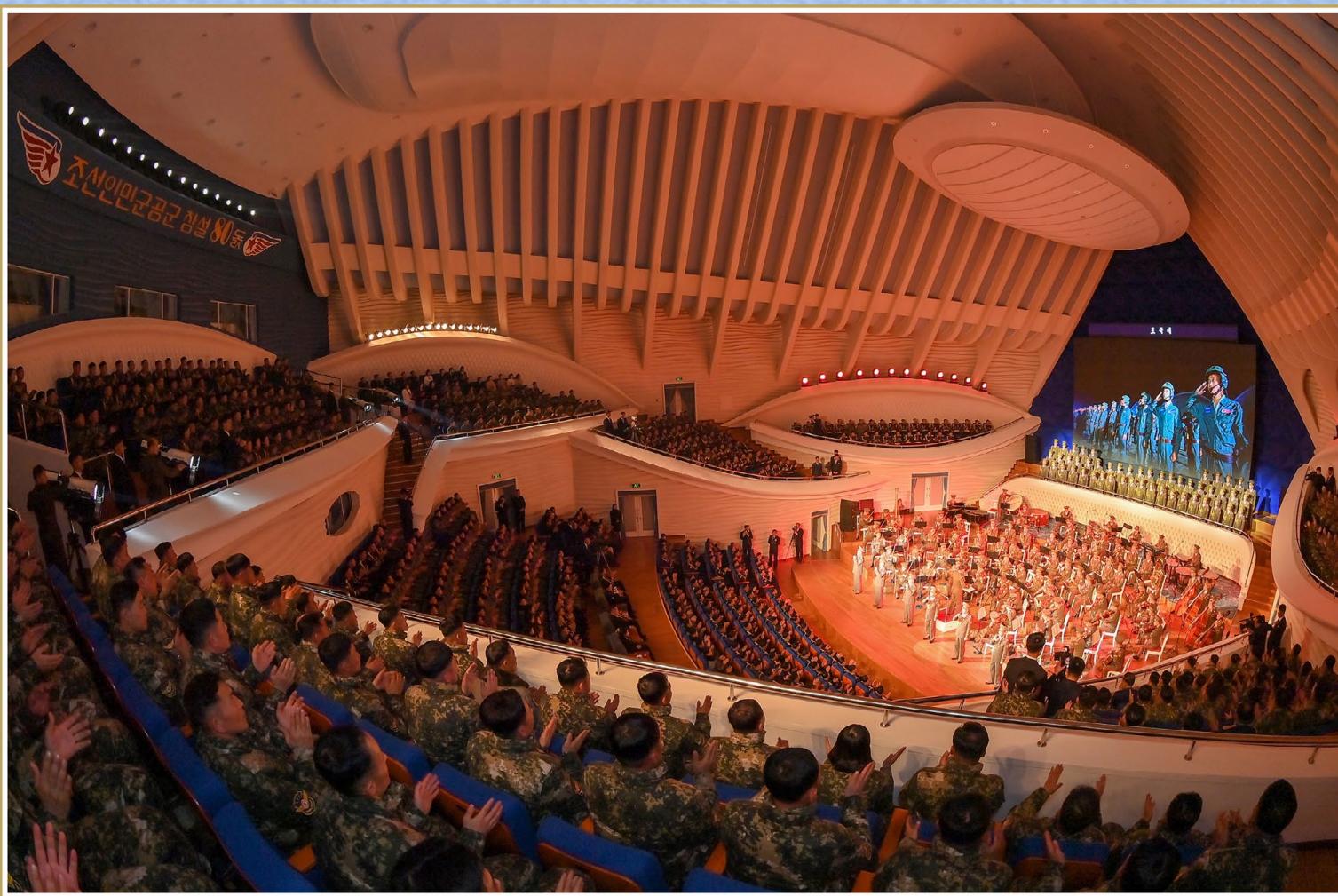
조선인민군 공군장병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새겨가는 헌신적인 복무의 자욱자욱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감동깊게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날 저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을 기념하여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민군 공군의 각급 군정지휘관들과 비행사들, 관병들, 제대장령들이 연회에 초대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간부들과 국방성 지휘관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공군창설 80돐 기념행사는 충성과 위훈의 항적을 새겨온 영광스러운 전통을 줄기차게 빛내이며 우리 혁명무력의 맏아들군종답게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의 역사를 천년, 만년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영웅적인민공군의 드림 없는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안전보위기관장립 80돐에 즈음하여 국가보위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정치보위대이며 혁명보위의 대들보인 공화국보위기관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80돐기의 년륜을 궁지높이 아로새기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안전보위기관장립 80돐에 즈음하여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국가보위성에 도착하시자 탁월한 령도로 국가안전보위기관을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의 주권과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고수하고 굳건히 담보하는 사회주의제도와 인민보위의 강력한 보루로 다져주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보위전사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를 국가보위상 리창대동지를 비롯한 국가보위성 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계양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국가보위성에 축하문을 전달하시였다.

전체 보위전사들은 당의 로선과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전초선에서 충성과 위훈으로 이어가는 성스러운 수호의 낫과 밤들에 언제나 뵙고싶고 달려가 안기고싶던 어버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한없는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쳐 또다시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국가를 보위하는 투쟁의 전위에서 혁명적신념과 의리, 티없이 깨끗한 충심과 투철한 계급적사명감을 간직하고 애국충성의



길을 얹척같이 걷고있는 보위전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이 집권당으로 탄생하여 첫걸음부터 적대세력들과의 고전을 동반하는 간고하고도 험난한 초행을 걸어오면서도 혁사에 전무한 전설적인 변혁과 승리의 페지들만을 기록해올수 있은것은 계급투쟁의 전위에서 혁명보위의 한길을 끊임이 걸어온 보위일군들의 공적과 빛나는 위훈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얹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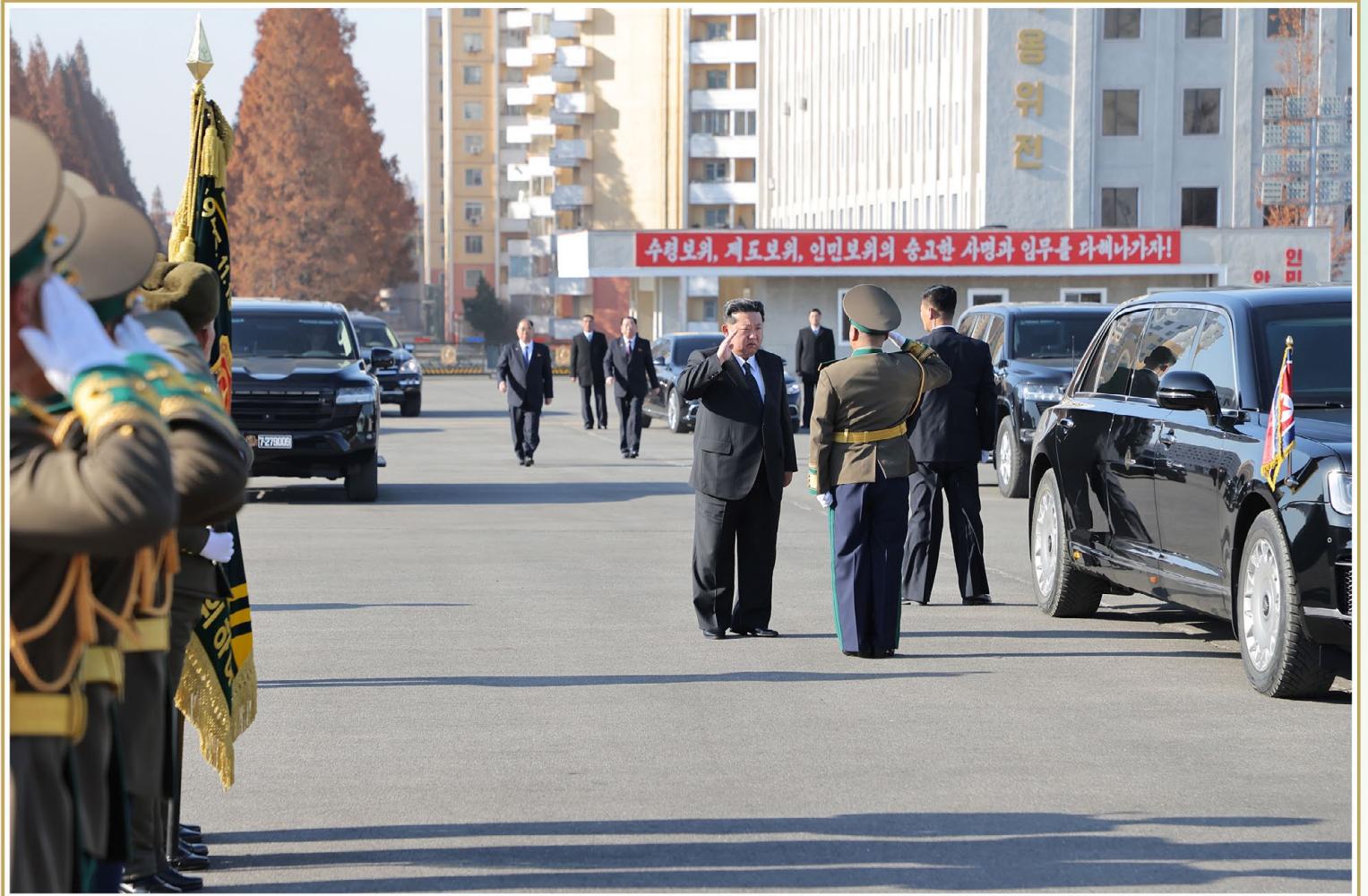
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정치적보위자라는 신성한 부름을 가장 귀중한 영예로 간직하고 한생이 모자라면 대를 이어 가며 준엄한 보위전선에서 당과 사회주의와 인민의 위업을 보위하고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숨결과 거세찬 약동을 지켜주고있는 공화국보위기관의 전체 일군들과 군무자들을 다시금 뜨겁게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는 사회안전성을 방문하시고 사회안전군 장병들을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안전기관 창립 80돐에 즈음하여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을 방문하시고 사회안전군 장병들을 축하격려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안전성에 도착하자 전체 안전일군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안전무력강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를 사회안전상 방두섬동지를 비롯한 사회안전성의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밟들어 혁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는 전투적려정에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사회안전군의 전체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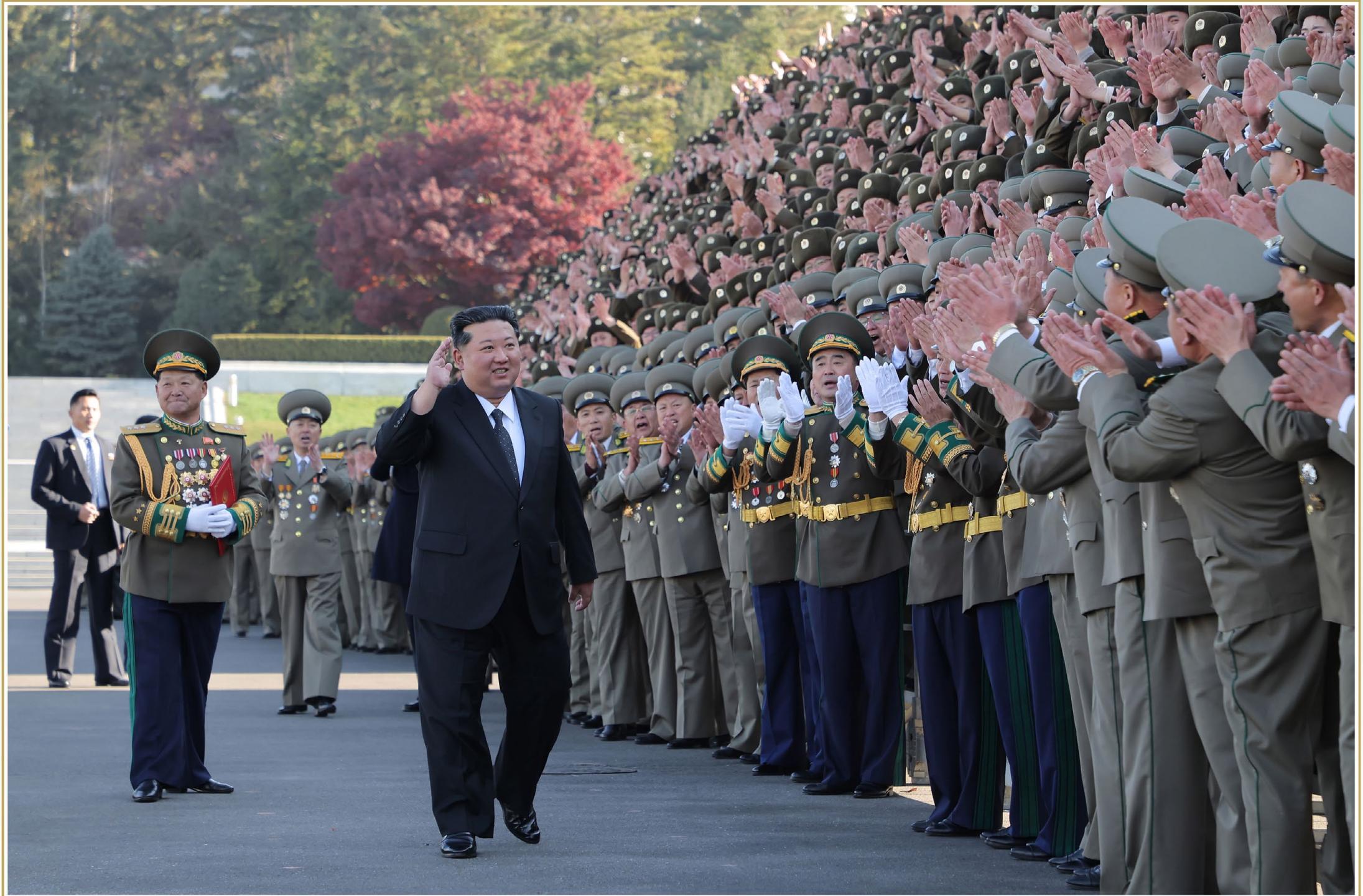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사회안전성에 축하문을 전달하시였다.



뜻깊은 창립일을 맞으며 필승과 영광의 투쟁일로를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하늘같은 신임을 주시고 열화의 사랑을 안겨주시는 김정은동지께 사회안전성 일군들은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출기차게 인도하여온 우리 당의 혁사속에 천연히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 성스러운 나날들에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핵심무력으로서 일순간의 탈선도 없이 당의 두리에 억척의 성새로 서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된 우리 당의 사회안전건설사상으로 퉁튼히 무장하고 깨끗한 충의심과 애국적분발력, 일치단합된 분투



로써 대오의 정치사상적 정예화와 전투력 강화, 혁명임무 수행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며 자기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명예를 변함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했던 사회안전군의 전체 장병들이 지나온 80년의 연혁보다 더 값비싸고 영광스러운 복무의 년대기를 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사회안전성 일군들과 함께 청사에 길이 새겨질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열혈의 심장마다에 끓어넘치는

충성의 맹세가 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으로 분출되어 11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졌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대해같은 믿음과 영광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혁명의 보검, 계급의 붉은 칼날을 더욱 서리발치게 벼리며 사회안전무력이 지닌 성스러운 사명수행에 백배분투함으로써 주체혁명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을 만나시고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재판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법검찰기관창립 80돐에 즈음하여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의 책임 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강대성과 존엄의 최고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기관들에 모시는 참가자들의 무한한 격동이 우렁찬 『만세!』의 환호로 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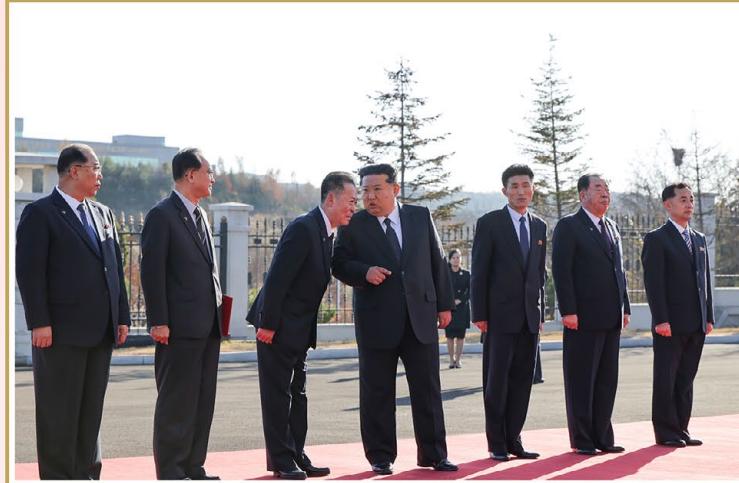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계양식들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법검찰기관창립 80돐에 즈음하여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에 축하문을 전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권위있는 법집행기관들의 뜻깊은 창립일에 즈음하여 당이 부여한 신성한 법권을 지니고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는 중대한 혁명임무수행에 심혼을 바쳐가고 있는 사법검찰기관의 전체 일군들을 따뜻이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사법검찰기관들은 새 조선의 혁사우에 인민주권확보의 성벽,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법적무기로 첫폐지를 아로새긴 때로부터 우리 당의 주체적사법검찰사상을 받들어 80년의 전 행로를 영광스러운 공훈으로 엮으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강력한 법집행기관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검찰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에 전무한 고귀한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들을 떠올린 우리 혁명의 낸대기들에는 준엄한 나날이나 평화로운 나날이나 어려운 법적투쟁의 길에 한생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묻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전심분투해온 사법검찰 일군들의 공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이렇듯 강직하고 힘 있는 법일군대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부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거창한 변혁과 줄기찬 비약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분수령을 이룬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기는 사법검찰기관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성기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 사회주의제도의 보위자로서의 계급적 본분에 변함없이 충실히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들에서도 뚜렷한 자우를 세겨가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법검찰기관의 전체 일군들이 우리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적사법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값높은 위훈과 영예를 계속 떨쳐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존엄높은 우리 국가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세워온 영예로운 역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이며 새로운 상승단계에로 이행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담아 일심충성의 구호를 힘차게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1월 1일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하시였다.

특수작전군단은 최대의 경모심을 안고 국가수반을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영광의 군기에 전투적 경의를 표하시고 대련합부대와 관하 련합부대 군정지휘관

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자기의 숭고한 사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싸움준비완성의 혁혁한 군공으로 빛나는 영예로운 복무의 자우를 새겨가고 있는 대련합부대 장병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부대가 걸어온 성스럽고

궁지높은 전투행로를 감회깊이 되새겨보시면서 이 군단은 당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는 군단, 우리 군대의 고귀한 명성과 불멸할 명함을 주추로 받쳐주고 있는 믿음직한 전위전투대오라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수많은 공화국 영웅들을 배출한 영예로운 행적만으로도 인민군대의 영웅성의 상징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

연구실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특수작전력량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방침과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관하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단관하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당의 특수작전무력건설사상을 실천적 성과로 빛들어 모든 관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땅땅 여문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키워가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설적인 영웅전으로 긍지높은 부대의 연혁과 영광의 군기에 오직 승리의 혁혁한 군공만을 새겨갈 의지를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령에 전심전력해가는 군인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건군사에 불멸할 화폭을 남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대련합부대 방문을 기념하여 지휘부 장병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담대한 영웅성과 강인한 기개, 무비의 전투정신을 특질로 하는 공화국의 영예로운 근위병, 정예의 첨병대오로 더욱 훈튼히 준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사무치게 새겨지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다.

새 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경제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은 이 땅우에 부강조국 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

1990년대 중엽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책동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 련이은 자연 재해로 전례없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드시고 준엄한 난국을 맞받아 과감히 뚫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우리 인민이 부강 조국건설에서 확고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사상리론을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건설로선을 제시 하시여 경제강국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0년 7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2년 10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그이의 경제건설로선은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위협과 봉쇄, 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로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선방침, 두별농사방침, 양어와 축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 국토건설과 토지정리방침 등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체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립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4년 9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 2008년 12월



철광석생산으로 들끓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그이께서는 금속, 화학, 전력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 하는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일신시켜 농업생산을 늘릴수 있게 하신것을 비롯하여 자립경제발전을 위한 고귀한 재부들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번지게 하시였다.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9년 9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0년 12월





함흥편직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11년 12월

불면 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하신 그이의 뜨거운 숨결과 체취는 공장길, 농장길에 력력히 새겨져 있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 경제의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서기(2011. 12. 17.)하시기 이틀전에도 그이께서는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을 오랜 시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 다음날에는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집무를 보시였다.

그리고 그밤으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였다가 열차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전 기간 1만 4 290여개의 단위들을 찾아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돋것과 맞먹는 연 167만 4 610여리의 길에 현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거대하고 귀중한것인가를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글 김선경



2.8비닐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매하는 김정은동지 2011년 10월

지방중흥의 새시대가 펼친 2025년의 새집들이경사

지방중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지방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 있다.
올해에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졌다.
북변의 심산오지로부터 해안가, 내륙지대, 벌방지대 등 어디라 할것없이 지역별,
지대별특성을 살린 단층, 소층, 다락식살림집들이 일때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었다.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전면적부흥의 휘황한 래일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종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지금 어디 가나 우리 당의 육아 정책에 의하여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을 볼수 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육아정책이 실시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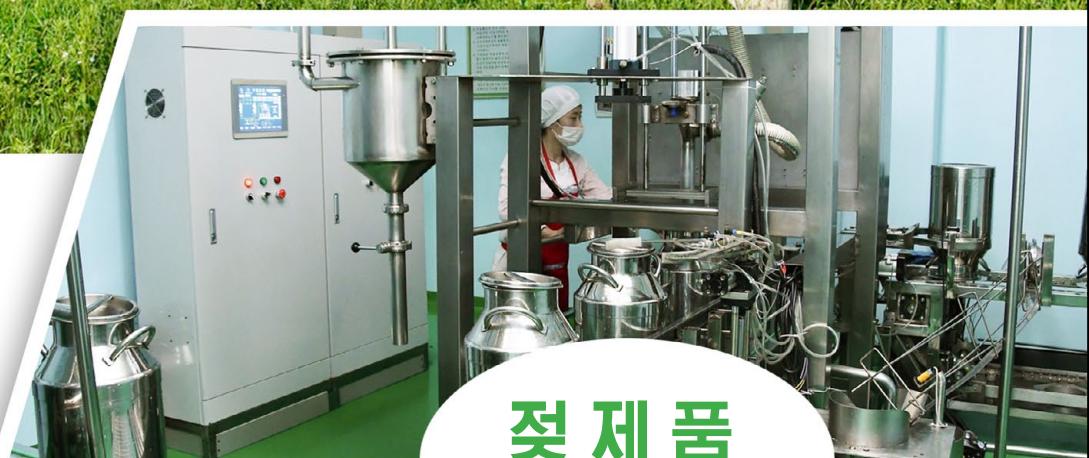
에게 매일 젖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각 도, 시, 군들에서 젖제품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고있다.

젖소의 사양관리와 젖생산에 필요한 시설들과 설비들이 그흔히 갖추어진 목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젖제품생산 공정들이 새로 꾸려지거나 개건되며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젖제품을 실은 차들이 달린다.

생산능력이 확대되었다.

현재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당 육아정책의 혜택속에 온 나라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없다시며 다심한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정을 뜨겁게 느끼고 있다.

글 박병훈



종합적인 과일가공기지



평양시 삼석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은 2011년 7월에 조업하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생산과정들은 자동흐름선화되어 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기술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에 의거하여 과일 가공품생산을 계속

-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찾아서 -

늘여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새제품 및 공업시험 연구소의 역할을 높여 제품의 가지수를 계속 늘이고 그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연구소의 모든 성원들은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내놓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합쳐나가고 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최근 공장에서는 과일발효초탄산 단물, 오디록차단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성음료들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대동강》상표를 단 대동강과일 종합가공공장의 제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네 번째로 들어 올린
월드컵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 쟁취

화보 [오늘의 조선]

마로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 대회에서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이 영예의 1위를 쟁취하고 네번째로 되는 월드컵을 들어 올렸다.

조별련맹전과 16강자전, 준준결승, 준결승경기에서 맞다드는 팀들을 전술 기술적우세로 압승하고 최종단계에 진출한 우리나라 팀과 유럽의 강팀으로 알려진 네데를란드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진행되었다.

선수호상간협동을 강화하면서 상대팀을 부단히 압박하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14분경 15번 김원심 선수가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하였다.

경기시간 18분경 11번 박례영선수가 멋진 득점 장면을 펼쳐보인데 이어 42분경에는 7번 리의경선수가 또다시 상대팀 그물을 훈들어 놓았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네데를란드팀을



3:0으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경기로부터 결승경기에 이르는 7차례의 경기들에서 전승의 성적과 25개의 득점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최강팀으로서의 실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하였다.

시상식에서는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유정향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인 금별상과 최고득점자상인 금축구화상이, 김원심선수에게 은별상과 은축구화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선수상인 금별상과
최고득점자상인 금축구화상을
수여받은 유정향선수



은별상과 은축구화상을
수여받은 김원심선수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5088044765